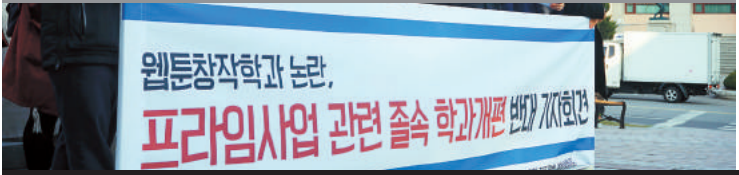


4~5》프라임사업 탈락을 바라보는 구성원



6~7》불안정한 노동환경 해결책은?



우정장학금(가계곤란)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6. 05. 29~2016. 05. 31
신청자격
①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해 소득분위 8분위 이하
② 2016-1학기 복학생은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③ 현재 재학중인 자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용자신청-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계획안 계속 추진할 것 단, 속도 조절은 불가피”

〈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

프라임사업 탈락 그 이후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지난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프라임(PRIME)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학교는 학내 구성원의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최종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약 10개월 동안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60여 차례가 넘는 구성원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소통이 부족해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다. 우리 신문은 이번 프라임사업 탈락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선과 이를 통해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프라임사업은 정부와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게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연간 150억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대형사업), 우리학교는 기존의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부합한다는 명분으로 사업 참여 뜻을 밝혔다. 우리 신문은 그 동안 프라임사업 준비를 총괄적으로 진행해온 미래정책원(미정원)을 취재하며 프라임사업 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미정원은 당시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월 말 프라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프라임사업 계획을 위한 워크숍, 소통위원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3월 21일 총장 주재 워크숍으로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 전까지의

소통은 마무리됐고, 3월 31일 미정원은 프라임사업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5월 3일 프라임사업 선정 발표 결과, 아쉽게도 우리학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 발표 후 대학은 총장 서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내용에서 충분치 않아 궁금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미 프라임사업에 탈락한 몇몇 대학들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출했던 계획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측은 “지원금 없이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중앙대도 정원조정 계획을 원점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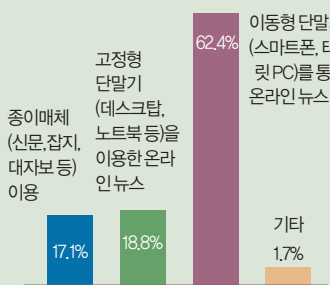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학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계획을 유지할 것”이라며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미정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프라임사업 만을 위해 이번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학교가 나아가려고 했던 바와 교육부가 제시한 프라임사업의 방향성이 부합했기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해 선정됐을 때만큼 빠른 추진은 힘들겠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탈락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원장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지표나 점수를 공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탈락원인은 우리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선정된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의 계획서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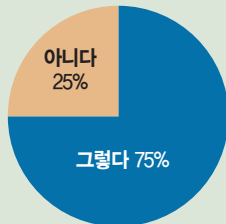
▶4면으로 이어짐

‘구성원 교내 미디어 이용’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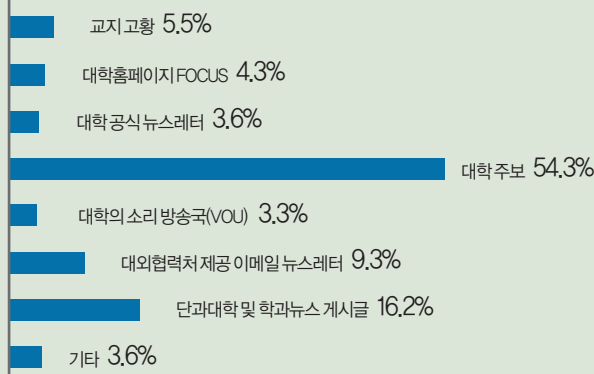
Q1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학내뉴스를 이용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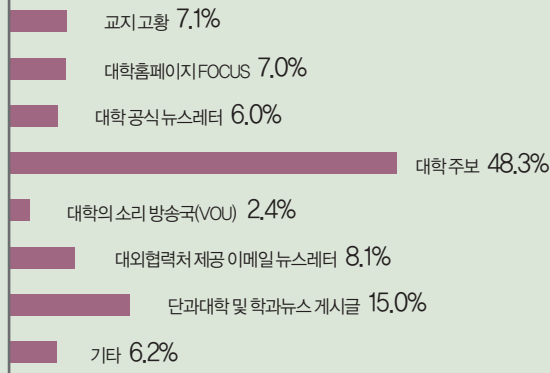
Q2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십니까?



Q3 아래 매체 중 학내뉴스를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Q4 아래 매체 중 학내뉴스를 이용할 때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 조사기간 : 2016.05.09.~2016.05.16. / 조사방법 : 이메일 대량 설문조사

▶관련기사 : 9면

Newsmaker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
주성재 (지리학) 교수



“지명에 사람 이름 붙일 때가 가장 신중해진다”

류제원기자 jennyoo95@khu.ac.kr

#. 이순신대교, 위례터널, 카이스트 교(橋)…。 우리 주변 산과 다리, 건물엔 저마다의 이름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런 이름을 결정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가지명위원회다.

주 교수는 지난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단체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는 연간 500여 개의 지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그런 그에게 이름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는 ‘이름’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이름에는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 그리고 기억이 들어있다”며 “이름은 단지 그 사물뿐만 아니라 지역성, 그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까지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감정

주 교수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짓거나,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할 지역 주민의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실제로 지난 3월 충청북도에 있는 ‘원통산’이 기존 한자인 ‘원망하다(怨)’와 ‘서럽게 울다(慟)’에서 ‘둥글다(圓)’와 통하다(通)’로 바뀐 사례를 들며 “그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명 대상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 간 갈등이 지명 결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가령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을 잇는 다리의 경우, 두 지

역이 다리 이름으로 각각의 이름을 주장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 “알아보니 군산의 시화와 서천의 군화가 동백꽃으로 동일했다”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각 행정단체에 꽃의 이름을 판 ‘동백대교’를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 동백대교라는 이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물론, 지명을 심의하는 기준은 있다. 지명이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안전이 상정됐는지, 도의적 원칙에 맞는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주 교수는 “생존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붙이지 않으며, 죽은 인물이라도 일정 기간 평가를 거친 후 그 사람의 업적을 엄밀히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국가지명위원회 이외에도 ‘동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동해연구회에서는 지도에 ‘동해’ 영문표기 업무를 담당한다. 주 교수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동해는 단순히 지명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그것을 부르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느낌, 감정까지 다 포함된 이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본 사람들도 고려해 병기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UN지명전문가그룹회의’에도 10년 넘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우리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서야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냐”며 미소를 지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14

김병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현대 사회에서 돈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지불 수단이며, 가치 척도로서 기능한다. 학계에서는 화폐의 이러한 기능을 주로 연구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여기서 몇 단계 더 나아가간다. 짐멜은 〈현대 문화에서의 돈〉(1896)이라는 에세이에서 근대적인 사회결합과 개인주의, 물신(物

神) 숭배, 근대적 세계상을 돈과 화폐경제로 분석하는데, 이 에세이에서 짐멜은 돈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 즉 문화나 사회관계의 이



짐멜은 돈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 즉 문화나 사회관계의 이중성과 모호성에 주목한다.

중성과 모호성에 주목한다. 결합, 연결, 관계, 끈, 얽힘, 거리, 해체 등 다채로운 연관어도 돈과 화폐경제에 의해 형성되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을 환기시킨다.

짐멜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사회는 인격적 유대에 기반한 사회적·도덕적 책무로 결합한 ‘삶의 공동체’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결합은 자본주의, 도시화와 산업혁명 등의 여러 충격으로 해체된다. 그 중에서 특히 화폐경제의 발전은 금전적인 거래에 기초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게 했다. 즉, 돈은 비인격적이고 특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과 집

단을 순수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새롭게 결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화폐 거래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인간 소외의 비극을 낳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 짐멜은 화폐 경제가 근대인에게 경제행위에 미증유의 비인격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양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돈에 의한 의무의 지拂로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해방되고, 극단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11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면 〈편집장〉 이시은 기자(컴퓨터공학 2011)

명

〈편집장〉 김도엽 기자(정치외교학 2012)

정정보도

1606호 4면 ‘통섭적 인재 가물가물 … 설립 목적 상실한 자율전공학과’에서 타 학과 전공은 ‘자유이수학점’이 아닌 ‘기타학점 공통’으로 이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정정합니다.

이번 호는 개교 67주년, 대학주보 창간 61주년 기념
특별 호로 12면 발행됩니다.

시선

사설

‘찾아가는 진정성’,
그것이 오늘의 소통이다

대학이 아무리 소통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구성원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가려 한다면 거기에선 그 어떤 생산적 논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 결국, 소통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 맞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학과 구성원 간에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통을 통해 구성원은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식과 자각을 갖게 되고, 이로써 대학에 대한 로열티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강한 로열티가 대학 발전의 가장 든든한 한 축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프라임사업에서 교육부가 사업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문제를 강조했던 것도 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소통’을 평가지표화한 것 자체는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혐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소통을 통한 구성원의 참여가 학교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우리 대학은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 뉴스레터 시스템, SNS계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SNS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원의 숫자는 대학가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든다. 그런데도 우리학교는 소통을 잘 못한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매체와 채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는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메일 뉴스레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지난 19일에 발송된 총장 명의의 서신은 ‘프라임사업 이후’에 대해 가장 관심도가 높을 학생 구성원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SNS계정은 각 SNS 고유의 문법에 맞는 게시물이 아니라 대학이 일방 설정한 단일한 문법을 좇는 게시물로 채워지고 있다. 경희대의 SNS계정은 ‘핫’하지 않다.

구성원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소통’이라고 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소통이란 학교가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구성원만 참여했던 지난 프라임사업 설명회의 살풍경했던 모습에서 대학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프라임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저조한 인식’이 아니라 ‘달라진 소통의 패러다임을 깨닫지 못한 대학’이 되어야 한다.

대학주보는 3년 전부터 매체다변화 및 모바일 최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온 끝에 독자 수가 증가하고 댓글 등 미디어 참여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효용을 잃어 가던 전통적 외형’을 탈피해 혁신과 발전의 계기를 모색한 사례는 이외에도 숭하다. 엄숙한 국가기관인 부산경찰청이 SNS를 통해 이미지를 혁신한 사례나, 죽어가던 콘텐츠였던 한국민속촌이 적절한 소통방식 하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진 자산을 재정비하고 오늘의 환경에 맞는 언어와 접근법으로 구성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번 대학주보 창간61주년 맞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가 갖는 대학 측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면일 것이다.

제2외국어 듣고 싶지만...

학점 때문에 ‘부담’

절대평가나 P/F제도 고려 필요

미디어 여론동향 2016.05.09 ~ 05.2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제2외국어’ 구사가 자기계발 및 스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심도에 비해 실제 제2외국어 과목 수강을 꺼려하고 있다. (‘맘 편히 외국어 강의를 신청하고 싶어요’...제2외국어 강의 수강 망설이는 학생들/대학주보 온라인, 2016.5.13) 현지 출신이나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인해 학점을 손해볼 수 있다는 걱정이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강의가 해당 언어를 처



이주의 주제 - 시간강사 처우 문제

“시간강사도 경희의 구성원으로”

양윤혁 (정기자)
yangyun0820@khu.ac.kr



지난 정기교과개편 이후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에서는 해축 시간강사에 의해 그들의 처우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후마니타스교육자협의회(교협)가 출범한 이후 어렵게 협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시간강사 측은 지난 학기 촉박한 시간으로 교과과정개편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재검토를 요구했고, 후마 측과 교협 측은 공식 만남에서 두 가지 요구안 (▲교과과정개편에의 시간강사 참여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TF운영)을 제시했다. 당시 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요구안을 수용하는 한편 선결조건으로 상호 근거 없는 비방 금지 조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강사 측은 회의 결과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협의는 결렬됐다. 최근에는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후마니타스 장례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축 이후 지금까지 약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후마 측과 시간강사 측의 긴 논의과정을 지켜봤지만 여전히 협의는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후마는 2011년도에 출범해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학교의 ‘상징’이 됐다. 후마의 성공적인 출범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모두가 인문학을 도외시할 때 우리학교는 시간강사, 객원교수,

전임교원을 모두가 보수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였다. 인문학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양대학을 성공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주 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후마 발족 이전부터 우리학교를 위해 힘써 온 시간강사들은 이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시간강사들은 학교에 의해 정리됐다. 그들은 ‘후마니타스’를 내건 경희대 조차 함께해 온 시간강사를 내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강사 처우는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행정 절차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강사 측은 인간적인 측면과 학문공동체를 주장한다. 양자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의 대립처럼 보인다.

후마 측에 있어 시간강사는 학기단위로 계약하는 노동자다. 시간강사는 자신들을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이며, 특히 후마의 교육철학을 볼 때 단순한 행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전인격적 판단에서 함께 후마의 일부로 인식해줄길 바란다. 시간강사 중에는 후마 출범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사람들도 있다. 지금까지 교양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학기단위로 위축된다고 해도 학교의 사정에 따라 큰 고민 없이 대체해도 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자도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먼저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시간강사 역시 우리학교의 교육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케케묵은 이 문제를 풀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성원은 사업탈락보다
참여 배제에 더 불안하다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우리학교가 프라임사업에 최종 탈락한지 20일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의 여파는 ‘탈락’이라는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는 듯하다. 많은 구성원들은 대학이 결과와 관계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지가 현실화될지에 궁금해 하고 있고 발표 전에도 불만스러워했고 발표 후에도 답답해하는 그 ‘소통’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

미래정책원은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면서 62회의 공식 소통을 진행했다고 하며, 경쟁 대학과 비교해도 그 의지가 결코 부족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통의 상대방인 구성원들은 우리신문이 진행한 프라임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소통을 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 포함)는 쪽에 63.7%의 응답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가 1,500명을 넘긴 조사였기에 일부의 의견으로 보기도 힘들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단 구성원의 관심이 부족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단과대별로 열린 프라임사업 설명회에 평균 20~30명 정도의 구성원이 참여하는데 그쳤고, 지난 4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진행한 프라임사업 계획에 대한 정책투표 역시 투표 자체는 성립됐지만 투표율은 26.5%에 그쳤다. 구성원들이 사업에 대해 갖는 관심이 현저하게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구성원의 낮은 관심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어야 할 학교의 소통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애초 대학은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게시판 하나가 활발한 논의를 담보하기는 힘든 것이었다.

단과대별로 시행된 설명회 또한 설명회 몇 일 전 급한 공지 문자를 돌렸을 뿐 구성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내용있는 소통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결과 발표 이후에도 대학은 구성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5월 3일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대학은 공식적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주 목요일(19일)에야 처음 나온 총장 명의의 ‘유감’ 서신은 가장 궁금해 할 학생에게는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준비 단계에서 발표 이후 마무리까지 어설픈 것만 하다.

발표 이후 어렵사리 취재가 성사된 지난 19일 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은 “많은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탈락이라는 결과는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번 준비과정에서의 소통 경험을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만족스럽지 못했던 ‘소통’을 아쉬워하는 기색이 었다.

이제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앞서 거론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프라임사업 계획에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장기적인 학문단위 재조정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반대하는 쪽보다 10% 가량 높았다. 신 원장의 말처럼 향후 학문단위 재조정 과정에서는 이번 소통 부족을 거울삼아 생산적인 논의가 구성원들로부터 나오게 해야 한다. 구성원은 사업 탈락 그 자체보다 장기적인 학문단위 재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대학은 살펴야 할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기획

▶1면에서 이어짐

이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미정원 서경아 부원장은 “우리가 제출했던 계획서의 내용과 교육부가 지향했던 방향이 다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표상으로는 선정된 대학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미정원 측은 논란이 됐던 소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전했다. 서 부원장은 “소통은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학생들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정원 김종백(사회학) 부원장 역시 “비록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학교와 학생들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 마주앉아 서로 간에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며 “프라임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만큼의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밀도있는 소통을 요구했음에도 정작 실질적인 자리에서는 호응이 다소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신 원장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정책원과 부총장이 각 단과대학 별로 공청회와 설명회도 개최했으며 공식적으로 62차례, 비공식적으로는 100회가 넘게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라며 “학생들 역시 본인들의 주장에 책임감을 갖고 본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다른 학교들은 재정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 역시도 멈춰있을 수는 없다”며 “느리더라도 꾸준히 변화해가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과 함께 진행됐던 ‘Add on track’과 5대 협력 연계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정원 김종백(사회학) 부원장은 “‘Add on track’ 역시 우리가 이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오는 2학기부터는 구성원의 피드백을 받은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대 협력 연계클러스터 역시 마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신설
위한 교육부 승인 신청 상태
외대 교수, 16일 긴급회의 진행
“소통 부재, 단체 행동 있을 수도”

찬가지다. 클러스터 사무국의 안남일 국장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사업 탈락 후, 몇몇 소규모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추가인원 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공과대학, 외국어대학(외대),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에서 각각 인원을 줄이고 대신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는 60명의 정원이, 컴퓨터공학과는 18명의 인원이 추가 배정된다. 하지만 관련 사업 계획서 제출기한인 20일에 맞춰 다소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합의과정에서 인원 조정 문제로 국제캠 구성원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외대 교수들은 이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외대 민관동(중국어학) 학장은 회의에서 소통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 학장은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다른 학과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소통과 절차가 부재한 것 같다”며 “이와 관

련해 아직까지 외대 교수님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교수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민 학장은 프라임사업 탈락 후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재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대 교수들은 인문학이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현재 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코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정원은 “각 단과대학 별로 줄인 정원이 전자정보대학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 개의 학과만으로 단과대학을 신설할 수는 없기에 몇 개 학과가 추가로 신설된 후에는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분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프라임 사업에서는 공과대학 인원을 이동시킬 수 없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 정원 이동 승인 신청 제출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직접 방문해서 한 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라임사업 탈락을 두고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교

수의회는 프라임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을 통해 교수의회는 “대학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 역량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프라임사업 선정 탈락과 향후 대책에 대한 총장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교수의회는 “자구적인 재원조성, 학사구조와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안정된 대학재정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신 말미에는 “프라임사업 선정 탈락이 구성원 간 불화와 갈등, 책임회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학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학본부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도 프라임사업 탈락 이후 학교의 프라임사업 원안 진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정주희(사학 2012)회장은 “정책투표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학생회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며

201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일시	장소	대상
2016.05.27(금) 10:00~17:00	예술·디자인대학 415호	외국인 학부생·대학원생

	시간	프로그램	내용
1부	10:00~10:30	개회사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30~12:00	적성검사 분석	자기이해 및 직업유형 파악
	12:00~13:00	점심	학생식당
2부	13:00~14:30	채용서류 작성법	채용과정의 이해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14:30~15:00	휴식	간식제공
	15:00~16:30	취업전략 강의	글로벌 취업전략 (외국인유학생 취업기업·업종)
	16:30~17:00	수료식	만족도 조사 및 기념촬영

신청 및 참가비

● 신청 : 학교 및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참가비 : 무료!! (중식 및 간식, 기념품 제공)
● 모집기한 : 5월 25일(수)까지

수업관련 사항

프로그램 참여시 수업출석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전 발행

● 문의 : ☎ 031-201-3961, hannadi0223@khu.ac.kr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10주년 기념
희망나눔 열린음악회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정]

경희가족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열린음악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Happy, Love, Fun, Together in
생명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 불우이웃 및 난치병 치료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후원 참여 및 문의 전화 102-440-777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출연진

소프라노 윤신혜, 오페라소프라노 신유빈, 알토(ALT.) 박지영, 테너 임기영, 화성합창 유조

기타 출연진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학과 / 강동권희대학교병원 합창 및 무용, 선드아트 외
※참가 출연진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교수법 특강 안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님들의 Teaching 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주제로 교수법 특강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新

강풍법: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

▶ 주의 집중을 위한 스팟 기법
▶ 학생 참여형 교수 기법
▶ 수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인드 셋 업

일시

2016.05.24(화) 12:00~13:30

장소

멀티미디어관 112호

강사

김성학 (에듀웨이 대표)

대상

경희대학교 교원 전체

신청기한

2016년 5월23일(월)

주최/주관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 ☎ 031-201-3954

※ 문의 : 김희정 선임연구원 Tel. (031) 201-3950~5, 학생회관 111호

경희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의회 “자구적인 재원조성, 학사·행정 개편부터”

서울 총학 “사회 수요에만 경도된 원안 수정돼야”

국제 총학 “캠퍼스 본·분로 인식 청산할 기회 놓쳐 아쉬워”

직원 노조 “학문단위 재조정 단과대학 수 조정에서 시작”

“하지만 프라임사업의 방향이 단순히 사회의 수요에만 집중한 것이고, 이는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에 어긋나기에 기본적으로 원안에 대해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 학교 측과 보다 면밀하게 조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먼저 “프라임사업을 캠퍼스 간 본·분교 인식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프라임사업에 탈락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조심스럽게 국제캠 총학이 생각하는 탈락 원인을 전했다.

김 회장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 좀 더 과감하게 사회수요에 맞는 과를 증원하거나 확실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데이터과학과’나 ‘바이오헬스산업학과’ 같은 애매한 학과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에 선정된 대학과 우리학교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실감이 크다”며 “프라임사업 선정이 끝난 지금,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총학,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사업 계획서 상 가장 큰 개편이 예상됐던 생명과학대학은 아직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생명과학대학 백광희(유전공학) 학장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백 학장은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의논 중이며, 각 학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생명과학대학 학생회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3) 회장은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이상 당장 개편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

용은 오는 10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프라임사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많은 정보 교환과 협의 체계를 만드는 것에 행정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월 내로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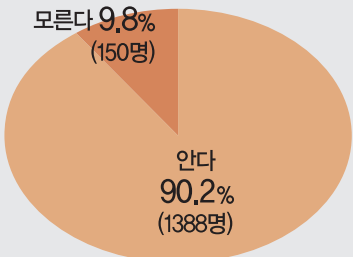
직원 측 대표인 노동조합 송해경 위원장도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라임사업 실패에 대해 직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먼저 유사·중복학과 통합과 같은 학문단위 재조정이 있을 후에 프라임사업에 지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나 외부 지침에 의해 서라기보다 자율적으로 학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원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던 학문단위 재조정은 단과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단과대학 수를 줄이지 못하면 정원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단과대학 수를 줄이면 보직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반가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 수를 줄여야 나중에 학문단위 재조정이 수월할 수 있다”며 이는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 아닌 조합원들의 의견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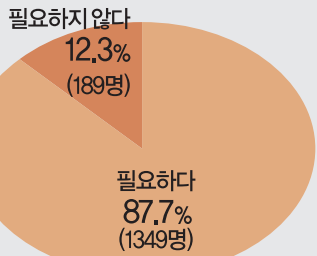
더불어 “자율운영제로 운영된다면 단과대학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 비대해지는 중앙부서의 인원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도 이번 프라임사업을 계획하면서 학문단위 재조정이 있을 거란 말을 듣고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사업 기한을 맞추느라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라임사업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선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심스럽게 다시 접근을 할 때다. 원점이든 중간지점이든 다시 돌아가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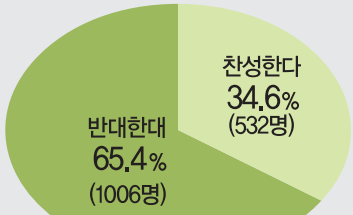
프라임사업 선정
최종 탈락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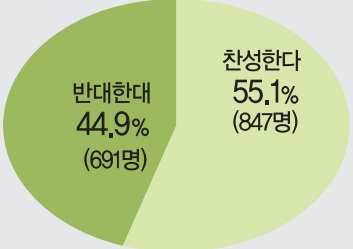
프라임사업 최종
탈락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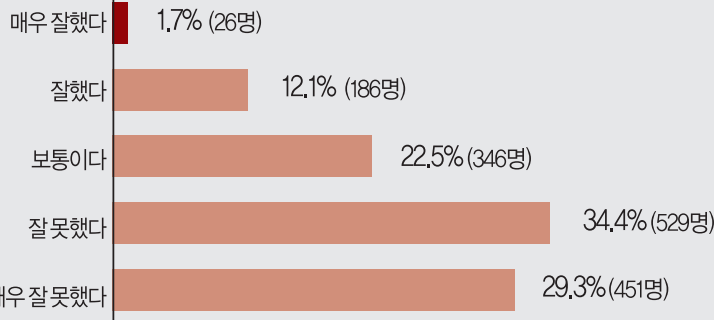
탈락 후에도
프라임사업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라임사업과는
별개로 학문단위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측과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기간 : 2016.05.17.~2016.05.20. / 조사방법 : 이메일 대량 설문조사

원안 추진 65% 반대,
학문단위 조정 55% 찬성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3일 프라임사업 탈락 이후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나흘 동안 총 1,519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며 프라임사업 이후 높아진 관심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프라임 사업의 결과를 알고 있느냐는 문항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88명(90.2%)으로, ‘모른다’고 응답한 150명(9.8%)을 압도했다. 한편 프라임사업 준비기간 내내 이슈로 대두되어온 ‘소통’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는 응답이 26명(1.7%), ‘잘했다’는 응답이 186명(12.1%)에 그친 반면, ‘잘 못했다’는 응답은 529명(34.4%), ‘매우 잘 못했다’는 응답은 445명(29.3%)으로, 전체 응답자의 965명(63.53%)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응답자 중 87.7%에 이르는 1,349명이 ‘프라임사업 탈락에 대해 학교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탈락 후에도 ‘프라임사업계획서 제출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학교에 입장에 대해, 구성원의 1006명(65.4%)이 ‘제출안대로의 진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사고를 정부와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획일화 시켜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본교 계획안은 본, 분교 문제, 학과 간 이기주의, 구성원 간 갈등이 내포된 많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프라임사업계획안을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학 관련학과를 신설·육성하려면 재정계획이 탄탄해야 하는데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전망이 좋지 않다’는 현실적 견해도 제시됐다.

하지만 학문단위재조정 작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847명(55.1%)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프라임사업의 기조에는 반대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미정원) 신상협 원장은 “우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여견이 많은 것 같다”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문단위재조정과 프라임사업 계획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6.05.30(월) 17:00 까지 학번부여: 2016.06.07(화)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6.06.14(화) 10:30 ~ 06.15(수)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6.06.15(수) 12:00 (1차) 2016.06.21(화)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6.06.16(목) ~ 06.20(월)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6.06.21(화) 09:00 ~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6.06.22(수) ~ 07.13(수)	
성적업권(정정일)	2016.07.15(금) ~ 07.18(월)	

2. 수업안내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3학점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나.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3. 수강신청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1) 학점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 수강 가능
- 2) 단, 수강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 1) 정규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 1) 입력사항: 학년) 2016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6.06.21(화) 17:00	전액 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본인명의 통장 사본 동봉)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6.06.22(수) ~ 06.28(화) 17:00	수강료의 2/3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6.06.29(수) ~ 2016.07.01(금) 17:00	수강료 1/2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이수) 20명 이상
- 나.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 다.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 라. B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 불가함(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함)
-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 바.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행정실 방문
-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아.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상 8회, 5년제는 통상 10회, 6년제는 통상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허함

7. 문의처

-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일시 : 2016. 5. 23(월) ~ 26(목)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HU, Seoul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 무용학부 48대학생회 · 문화이티팩토리센터 Contact : 02)961,0539

청소노동자 ‘경희모델’, 구체적인 논의 시작돼야



불완전한
노동환경
해결의
실마리는?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정규직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늘려 원가를 절감하고 고용의 유연화를 달성하는 반면, 그럴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게 된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은 교직원의 채용형태를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청소노동자나 시간강사 등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학의 필수 구성원인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은 재정 문제라는 그늘 아래 외면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청소노동자와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본다.

청소노동자 직고용 어디까지?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은 청소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다. 대학은 이를 통해 인력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직고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측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 직고용 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재정 문제로 대다수 대학이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대학가에 불거지고 있는 청소노동자 부당처우가 이런 고용형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학교가 용역업체를 사이에 두고 청소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대학은 비용 일체를 지급할 뿐,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는 용역업체에서 담당하므로 대학은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소노동자 부당처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고용’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학교가 하청을 통한 간접 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동안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여러 문제가 대두됐다. 대표적으로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복지 혜택 부족 ▲용역업체 및 관리자의 횡포를 꼽을 수 있다. 양 캠퍼스 청소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동조합(노조)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토로했다.

‘용역’ 통한 청소노동자 운영

열악한 노동환경 무관심

한국노총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경희대 학교 수원관리지부(한국노총 국제캠 노조) 심규갑 지부장은 “노조 출범 전에는 고용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으며 “노동자들은 청소를 하다 넘어져 다치거나 하면 해고될까 불안해 하곤 했다”고 말한다. 임금 또한 타 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주휴수당, 추가수당 없이 한 달 기준 183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로 약 87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국제캠 임금은 주휴수당이 인정된 약 96만 원으로 서울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 서울시립대는 140만 원,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는 107만 원의 임금을 청소노동자에게 지불했다. 복지 혜택 또한 노조가 있는 다른 학교에 비해 부족했다. 서울캠은 연차휴가가 없을 뿐 아니라 산재 처리, 병가가 인정되지 않았다. 청소노동자 측은

당시 용역업체, 관리자의 횡포도 심각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A 씨는 용역업체직원이 “용역은 정규직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무시를 일삼곤 했으며 “말대꾸라도 하면 당장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노동자들은 스스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 서울캠에서는 2011년 10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경희대 분회(민주노총 서울캠 노조)가 출범했고, 이어 2012년 1월 5일 한국노총 소속 경희대 미화 현장노조(한국노총 서울캠 노조)가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를 형성했다.

민주노총 서울캠 노조는 10월 노조 출범 후 11월부터 민주노총 소속의 다른 학교 노조와 함께 집단교섭을 준비하며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시급 5,100원으로 인상 ▲식비 월 6만 원 지급 ▲상여금 연 30만 원 지급 ▲주휴수당 ▲추가수당 ▲병가 ▲산재처리 ▲보건휴가 ▲정년 70세 ▲인력총원 ▲복지후생기금 지급 ▲체육단련비 지급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캠 청소노동자 B 씨는 “노조 출범 다음 해에 통장에 들어온 돈이 30만 원 정도 확 올랐다”며 “복지 혜택도 좋아져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매년 단체 협상과 임금 협상을 진행한 서울캠은 현재 145만 원 선의 임금, 월 식대 10만 원, 연 4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국제캠 노조는 다소 늦은 2015년 11월 9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한국노총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김현중 위원장은 “서울캠 청소노동자와의 임금 격차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으며 현재는 작년 기준 서울캠 시급인 6,550원을 목표로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국제캠 청소노동자는 129만 원 선의 임금, 월 식대 6만 원, 연 30만 원의 상여금을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마무리된 용역업체 두레크린과의 10차 최종 단체 협상에서는 ▲정년 만 62세까지, 이후 1년 자동 촉탁 인정 ▲노조행동 배려시간 1,500시간 확보 ▲징계위원회에 청소노동자 2명 참석 ▲홍보활동 허용 등을 보장받았다. 단체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 기획운영부 장도준 부장은 “기존과 같은 정년 62세에 1년 촉탁만 인정받게 돼 아쉽다”며 “다만 내년 8월 두레크린과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새로이 교섭을 할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레크린 허윤기 과장은 “청소노동자와 용역업체는 공생의 관계”라며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조 설립은 청소노동자 부당처우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용역업체는 학교와 계약한 금액 내에서 최대한의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고 학교는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용역업체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소노동자 관련 제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대학이 모든 책임권을 용역업체에 위임한 상태에서 노조가 용역업체를 상대로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증진 등의 사안을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캠 청소노동자 임금

한국 노총 가입 12개교 중 가장 낮아

가령, 2016년에 이르러 양 캠퍼스 임금 차는 2011년과는 정반대로 벌어지고 있다. 서울캠 청소노동자는 시급 6,950원이 확정되고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만을 남겨두고 있는 반면, 국제캠 청소노동자는 2014년과 동일하게 시급 6,200원을 지급받는다. 국제캠은 “서울캠과 국제캠은 동일사업장이 아니어서 임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캠과 임금 수준을 맞춰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학교는 이미 용역업체에 계약금을 지불했고 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권은 용역업체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기획운영부 장 부장은 “서울캠은 노조 출범 후 매년 임금 협상을 진행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반면 국제캠은 늦게 노조가 출범해 임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한국노총에 가입된 12개의 학교 중 가장 임금이 낮다”고 말했다.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 간 갈등의 골 또한 여전히 깊다. 한국노총은 2013년 7월 두레크린 관계자의 폭언 사건 이후 두레크린 관계자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청소노동자 B 씨는 “노조 창립 후에도 달라진 바가 없다”며 “오죽하면 임금 협상보다 관리소장과 미화감독의 교체를 더욱 시급하게 생각하는 동료도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 지니는 본질적 문제나 용역업체 관리자와 청소노동자의 고질적인 마찰로 미뤄보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형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지난해 우리학교가 제시한 ‘경희모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10월 5일 희망제작소와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16

년까지 학교법인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2017년부터 청소노동자를 직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내 세 노조는 모두 임금인상과 현재 청소노동자 고용 보장을 전제로 경희모델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서울캠 노조 박경선 지부장은 “임금 삭감이나 인원 감축이 있을까 불안하긴 하지만 분명히 노동 환경이 좋아지리라 생각한다”며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꼭 국제캠 청소노동자들이 서울캠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캠 노조 백영란 분회장은 “학교가 책임감 있게 구성원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또한 노조와 함께 TF를 꾸리는 등 작업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 과정에 노조, 학교, 재단, 학생이 모두 참여해 학교가 책임감 있게 구성원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국제캠 노조 심 지부장 역시 “자회사가 설립되면 서울캠과 임금 차가 극복됐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노총 기획운영부 장 부장은 “캠퍼스 별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은 조율되더라도 자회사가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자회사가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국노총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직접고용 형태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 형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형태와 그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진해 교수는 “완전한 직고용은 학교 측의 반대,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은 청소노동자 측의 반대에 부딪혔었다”며 “경희모델은 학교와 청소노동자 측이 한 발자국씩 물러나 수용한 우호적인 직접 고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교 측은 직고용이 실현됐을 때 임금 인상 등 요구에 대한 대응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또한 교직원의 정년규정은 61세로 청소노동자를 기존의 직제로 편입시키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경희모델은 비용 면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나 다만 이번 결정이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실천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제는 2015년 10월 경희모델에 대한 실천의지 표명 후 가시화된 진척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희모델 진행 상황을 묻는 우리 신문의 질문에 사무처 측에서는 대외협력부총장실로, 대외협력부총장실에서는 학교법인 측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담당 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경희모델은 보여주기가 후마니타스 정신 실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해촉’ 통지 발단,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 계기 될까

불완전한
노동환경
해결의
실마리는?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정규직은 점차 줄어 들고 대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늘려 원가를 절감하고 고용의 유연화를 달성하는 반면, 그럴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게 된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은 교직원의 채용형태를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청소노동자나 시간강사 등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학의 필수 구성원인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은 재정 문제라는 그늘 아래 외면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청소노동자와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본다.



후마 - 시간강사 갈등, 왜?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반대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시간강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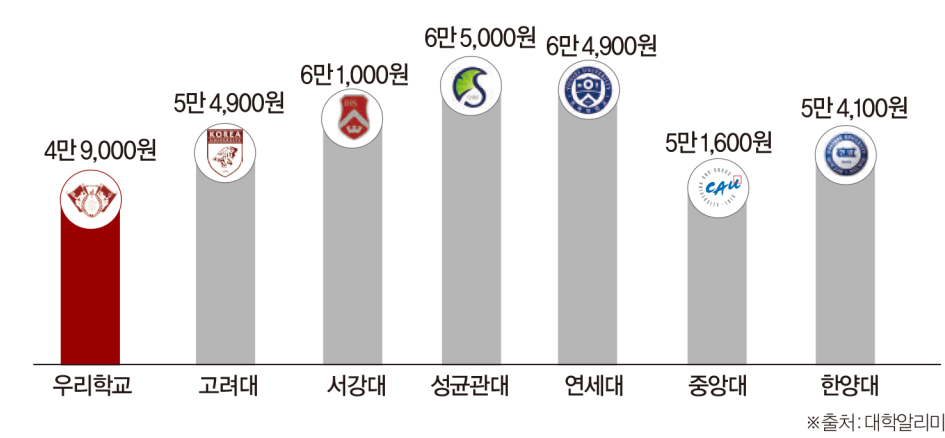
지난 12일 정오에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후마니타스 장례식’이 진행됐다. 우리학교 학생과 시간강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경희현재리포트’가 주최한 행사였다. 20명 가량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강사를 ‘그때그때 강의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면서 ‘행복한 인문학’과 시민성을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후마 출범 당시 ‘성숙한 인간’을 키운다는 교육목표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간강사 해촉문제가 불거진 뒤 서울캠에는 관련 대자보가 게재됐다. 교과과정 개편과 맞물려 후마 소속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가 이슈가 됐다. 후마에는 타 단과대학에 비해 소속된 시간강사가 월등히 많다. 대학알리미 공식 자료에 따르면 후마는 전임교원 비율이 서울캠 34.1%, 국제캠 24.8%다. 전체 단과대학 평균인 56.1%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2015학년도 2학기 교과과정개편에 따라 서울캠에서는 45명의 시간강사가 해촉됐다. 국제캠 후마 측은 시간강사 해촉 인원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캠 역시 시간강사강좌 수가 2015학년도 2학기 286개에서 2016학년도 1학기 179개로, 총 107개 줄어들었다. 시간강사들이 대개 1~2개의 정도를 담당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캠도 서울캠과 비슷한 정도의 해촉 원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 후마에서 해촉된 시간강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다. 이후 전임교원, 객원교수, 시간강사를 포함한 후마니타스교육자협의회(교협)를 구성했고, 이를 계기로 시간강사 측과 후마 측은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 교협 측은 후마 측에 ▲교과과정개편에 시간강사 참여 ▲시간강사 처우 개선 TF운영을 요구했다. 후마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상호 근거 없는 비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교협을 비롯해 강사모임에서는 이를 독소 조항으로 판단했다. 학교와 시간강사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시간강사 개인의 SNS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양 측은 최

2015년도 주요 대학 시간당 평균 강사강의료



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협, 후마와 합의 실패

결림들은 ‘근거없는 비방 금지’ 선결 조건

이후 강사 모임은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있었던 후마 장례식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다. 지난 16일에는 강사모임, 후마대학생위원회와 단과대학 학회 등의 단체가 참여해 ‘시간강사 부당해고 철회 및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당국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도 해고가 아니라 ‘강의 미의뢰’라고 이야기한다. 중복수업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후마니타스 교육이념을 후마 스스로가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간강사의 처우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간강사들은 현재 노동 안정성과 임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간강사가 느끼는 고용불안의 배경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시간강사들은 계약방식에 있어 ‘학기’ 단위로 위촉된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2학기 이상 한 학교에서 수업을 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계약이 학기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기 말마다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간강사 A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강사들은 학기 말만 되면 강의 위촉에 관한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다”라며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떠는 것이 일상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7조에는 ‘연속하여 최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

이 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8학기 째 강의를 맡는 시간강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무조건 한 학기를 쉬 이후에야 다시 강의를 맡을 수 있다. 소위 ‘8학기제’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후마 측과 시간강사 측 모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시간강사들은 ‘8학기제’가 고용불안에 일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이전에 해촉될 수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시간강사들은 ‘강의 평가 점수’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전임교원은 강의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되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다. 반면에 시간강사는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학기 위촉 여부가 좌우된다. 이에 대해 서울캠 후마 유정완(영어학부) 학장은 “연속 학기 위촉제한이나 강의 평가 점수가 시간강사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교과과정 개편 자체는 현재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학주부 1603호 3면, 교과과정 개편, 시간강사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시간강사 감축 추세

“후마만큼은 달랐으면”

방학에 강의가 없는 시간강사들은 임금이 관해서도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시간강사가 보편적으로 겪는 상황이지만, 우리학교는 사립대학 평균보다도 강의료가 낮은 수준이라 더 심각하다. 대학알리미 공식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학교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는 평균 49,000원 정도로, 사립대학 평균 50,600원보다 1,600원 적었다. 다른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1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시간강사 A씨는

“시간강사들은 방학기간 동안 급여가 없고, 강의 시간 외에 준비 시간도 고려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급여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시간강사들은 학내 와이파이, 중앙도서관,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간강사들은 학교에 애정을 갖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시간강사 B씨는 “시간강사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 흐름이지만, 후마가 출범할 당시에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모두 지위와 상관없이 힘을 합쳐 훌륭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목표로 함께했다”며 “전반적인 시간강사 감축 흐름에 우리학교조차 함께 해온 강사를 내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복수의 시간강사에게서 여러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학교 측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할 통로나 교섭할 수 있는 통로는 마땅찮다. 시간강사 A씨는 “학교 측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하다”며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서도 수차례 논의 위원회가 열렸지만 시간강사가 참여한 적은 없었고, 직접 참여가 아니더라도 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후마 측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전임교원, 객원교원, 학생 대표의 참여가 있었지만 시간강사의 참여는 없었으며, 시간표 편성 시 요일 및 시간 조정이나 학기 조정 등에 대해서는 PD(Program Director)교수 또는 행정실과 논의를 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한 후마 출범 이전 개별 단과대학에서 교양강좌를 만들던 시절과 비교해 시간강사 A씨는 “교양대학이 비대화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공동체적 관계가 파괴됐다”며 “후마는 교원 사이의 연대가 없어 학교 측과 논의할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협 측은 이와 같은 시간강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와 함께 논의해가자는 입장이다. 대학당국도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선결조건으로 걸려있던 ‘상호 근거없는 비방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논란은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 학기도 5주 남은 가운데, 학생에게는 반갑고 시간강사에게는 힘든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특집

대학주보 뉴스 이용 경로, ‘모바일’·‘소셜미디어’로 정착

창간 61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

차관호 기자 jypphvhv@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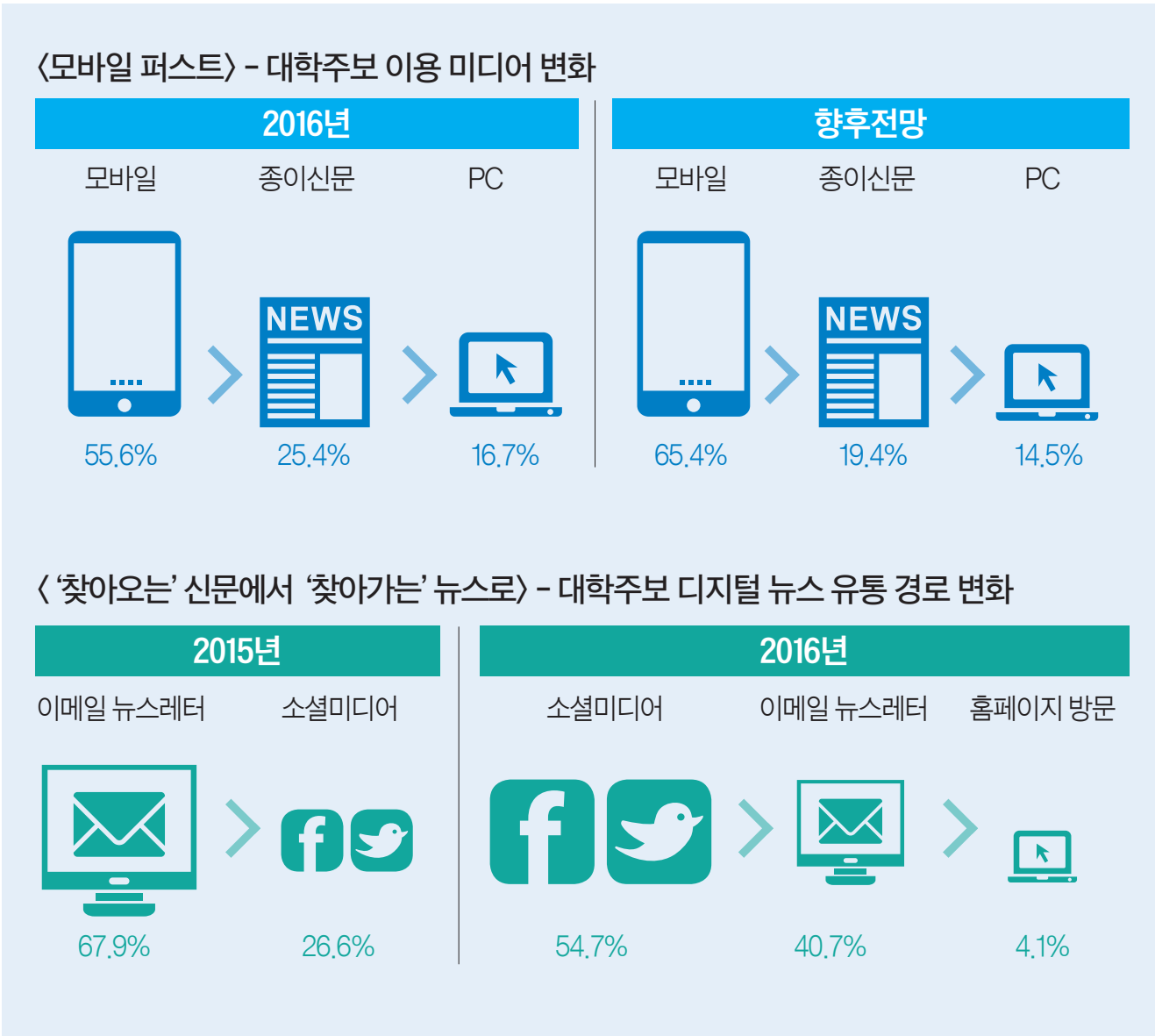
대학주보는 지난 12일, 창간 61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의 나이를 맞이한 대학주보는 그간 학내 유일의 언론이라는 깨지지 않을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2013년 대학주보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매체’, ‘가장 신뢰하는 매체’ 부문에서 대학 공식 매체 등 타 매체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깊은 위기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내 유일 매체’라는 한상 속에 갇혀 독자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결과에 다른 아니었다. 이제 2013년 이후 3년여에 걸친 ‘혁신’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독자의 의견을 통해 중간 점검해 본다.

우리 신문은 2013년 하반기 이후 뉴스의 디지털화와 모바일 최적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기사 유통 체계를 좀더 가속화해왔다. 이미 2013년 이전에도 이러한 노력은 진행해오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2010년,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했다.(대학주보 제1455호 1면, 2010.03.01) 2012년에 속보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페이지를 강화하고 SNS 운영을 통해 독자에게 더 빠르고 생생한 현장을 전하려 했다.(대학주보 제1508호 1면, 2012.03.05.)

종이신문에서 모바일로 이동

고정형 단말기 이용자 줄어

하지만 점진적인 노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2013년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었다. 2013년 하반기 대학주보는 홈페이지 자체를 모바일에 최적화한 반응형 웹으로 리뉴얼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기사 유통 체계를 대학주보 기자 조직 내에 공식 팀으로 발족시켜 강화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모바일 퍼스트’를 선언하며 종이신문 발행주기를 격주간으로 전환하는 큰 결정을 하기도 했다.(대학주보 제1585호 1면, 2015.03.02) 또한 영상뉴스팀을 신설해 텍스트 뉴스, 카드뉴스 등의 그래픽 뉴스, 영상 뉴스 등 포맷 간 협업과 실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6년 올해는 그간 축적된 뉴스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주 1~2회 전달하던 이메일 뉴스레터를 매



자(19.4%)보다 적었다.

모바일, 데스크탑 등 온라인을 통해 대학주보 기사를 접한다는 이용자들의 유통 경로 역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015년 조사에서 이메일 뉴스레터(67.9%) 소셜미디어(26.6%), 홈페이지 직접 방문(3.6%) 순이었던 대학주보 기사의 유통 채널은, 2016년 올해 들어 소셜미디어가 54.7%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이메일 뉴스레터(40.7%), 홈페이지 직접 방문(4.1%)으로 변화했다. 향후 대학주보 기사를 보고 싶은 채널에서도 소셜미디어가 50.7%, 이메일 뉴스레터 41.8%, 홈페이지 직접방문 6.1%로 학내 구성원의 콘텐츠 이용 경로가 스스로 뉴스를 ‘찾아가는’ 형태에서 ‘뉴스 발신자가 구성원에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어떤 뉴스 아이템을 어떤 뉴스 포맷으로 전달받기를 원하는지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다양한 아이템, 포맷 실험을 거쳐 구성원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을 전달해드릴 것이다.

유통경로 선호도 순서

SNS > E-mail > 홈페이지 직접방문

구성원의 신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최근 Space21, 프라이마사업, 캠퍼스 갈등 등 굵직한 학내외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을 종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3년 간, 대학주보가 시도했던 혁신 역시 더 많은 학내 구성원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무리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한다 해도 독자와의 공유가 있지 않다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 가디언, 슈피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인 유력지들이 앞다투어 ‘혁신보고서’를 써내면서 ‘자기반성’에 몰두하는 것은 이용자의 변화가 매체의 혁신과 그를 통한 생존을 강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주보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항상 구성원 옆에 자리하는 뉴스 유통망, 구성원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 개발, 대학언론이기에 가능한 대담한 포맷 실험, 이용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 다시 찾고 싶은 뉴스 생산자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혁신과 실험은 계속 될 것이다. 대학주보에 보내준 신뢰에 감사드리다.

일 발송하면서, 강화된 소셜미디어와 함께 독자와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기도 했다.

대학주보의 형식과 내용 전 부문에 걸친 그간의 혁신은 학내 구성원의 신뢰를 다시 찾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3년 단과대학 홈페이지(30.9%)와 당시 문화홍보처 제공 이메일 뉴스레터(21.4%)에 자리를 내 줬던(대학주보 19.2%) 학내 매체 이용 순위는 2016년 조사에서 54.2%로 1순위를 차지했다. 단과대학이나 학과 홈페이지는 16.1%로 여전히 구성원들이 자주 찾는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실의 이메일 뉴스레터 역시 9.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관련 그래프, 1면)

신뢰도 되찾았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학주보는 응답자의 17.4%의 선택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학과 홈페이지의 34.0%는 물론 당시 문화홍보처의 이메일

뉴스레터 17.7%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3%가 학내 매체 중 대학주보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개별 기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가 각각 65.4%, 6.5%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도 15%로 높게 나왔으며 홍보실의 이메일 뉴스레터는 응답자 8.1%가 가장 신뢰한다고 답해 세 번째로 자리했다.

대학주보 이용과 관련해서도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라는 지구적인 미디어 ‘화두’는 대학주보라고 다를 수 없었다. 대학주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종이신문에서 모바일로 변화했다. 2013년과 2014년 설문조사에서 각각 응답자의 32.6%, 31.5%가 종이신문을 통해 대학주보를 접한다고 응답했던 이 수치는 2015년 급변했다. 2015년 설문조사에서 이동형 단말기(스마트폰, 태

블릿PC 등)을 통해 대학주보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로 나타났다. 반면 종이신문을 통해 대학주보를 읽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올해 조사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됐다. 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뉴스로 대학주보를 접한다는 응답자는 55.6%로, 종이신문(25.4%), 고정형 단말기(16.7%)에 비해 높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종이신문보다 PC와 같은 고정형 단말기를 이용해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 비중이 격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대학주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서 더 두드러졌다. 2013년 조사에서는 21.5%의 응답자가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6년에 와서는 65.4%의 응답자가 이동형 단말기를 쓸 것이라 했고, 고정형 단말기를 통해 대학주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14.5%로, 종이신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4 ~ 2007학번 재학생 중, 급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과학의문자상' 등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면제종류	계열	대학	면제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공인영어 시험능력자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L)level2 이상	과목면제 상시입기 현재 최근 2 년 이내 점 수에 한함
	공통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지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계,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L)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L)level2 이상	
	예체능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00 이상	57(L)level2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명서류 제출한 지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면제를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과학인문(APEK)대상자는 증명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면제종류	자 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영어)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점 교류자/어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 외국 영어기관의 과정을 수료하고 성급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과정외국대학, 대학부설 및 공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8시간(3시간x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과목면제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률 80% 이상, 성적상급 수준으로 수료한자	과목면제

2016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6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 중 1 ~ 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용인시 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 55사단 172연대 3대대)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2. 훈련일자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 간
5월27(금)	◎ 국제대학 ◎ 국제·경영대학 ◎ 응용과학대학	
5월30(월)	◎ 체육대학	
5월3(화)	◎ 생명과학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6월1(수)	◎ 동서의과학과 ◎ 전자정보대학	09:00 ~ 18:00
6월2(목)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6월3(금)	◎ 공과대학 : 건축공학, 건축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정보전자산소재공학, 환경화학공학학과 ◎ 특수대학원(교육, 아트퓨전, 테크노경영)	
6월10(금)	◎ 교직원 ◎ 외국어 대학 ◎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국제, 동서의학, 체육)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 전에 대학(원)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3.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장갑)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이(착용시 입소 불가)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 지참자는 입소불가
4. 교통 안내
가. 학교지원 차량(임대 버스)을 강남역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 7번 출구 전방 200m(6번 출구 후방 50m) 우리은행 365코너 앞 에서 07:40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 사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다. 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훈련부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훈련일자 변경은 절대 불가함.
라.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자는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j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 단위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관리(서류 첨부)를 필히 할 것
라. '16년 훈련 시 입소통제 지침 : 08:00이후 도착자는 입소불가 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85~9)에 문의하기 바람

학내소통, ‘모바일’ 바탕에 ‘공유·자발성’ 이끌어내야

학내 소통 부족, 대안은?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학내 소통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모바일 환경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신문에서 진행한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내 뉴스를 접하는 방식에 응답자의 62.38%가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해 본다고 답했다. 학교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길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라고 답한 비율이 41.19%에 달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이용시간은 응답자의 약 32.3%가 하루 6분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학교가 앞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는 방향으로 소통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와 학생 간 새로운 소통 방식의 필요성은 최근 프라임 사업 준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소통 부족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됐고, 이는 결국 우리학교에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프라임 사업은 기존의 학문단위를 재조정하는 사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성원은 단연 학생이다. 하지만 대학 측은 사업 계획안이나 준비과정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대나무 숲이나 우리 신문 홈페이지에는 연속적인 불만의 의견이 계속됐다.

프라임 사업으로 드러난 소통부족

‘최종 선정’에 영향 주었을 듯

프라임사업 계획안 제출 이후 미래정책원(미정원) 측에 국제캠 정원 이동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정원 측에서는 자료를 공개한다면 이후 있을 대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에 공개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캠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제캠은 학과별 인원 변동이 크니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과 내 인원 변동이 클수록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강조되지만, 대학본부는 소통을 거부한 채 프라임 사업을 진행할 뿐이었다.

우리 신문 설문조사에서 ‘프라임사업 최종탈락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표명이 필요하지’를 묻는 물음에 87.66%, 1,272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우리대학 홈페이지는 여전히 데스크탑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불편하다.

대학 측은 60회 이상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양 캠퍼스에서 4차에 걸쳐 소통위원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소통의 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가영(주거환경학 2014) 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프라임 사업 간담회를 한다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뿐”이라며 “학교 측에서 했던 공지가 적극적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정원 측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지를 올려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학내 소식을 전달할 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http://www.khu.ac.kr)를 주된 소통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학내 공지가 게시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내 뉴스를 해당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확인하겠다는 답변은 불과 5.95%에 그쳤다.

지난 3월 2일 개강 이후부터 5월 19일까지 우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사 공지 4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조회 수는 약 1,191이었고, 같은 기간 게시된 434건의 일반 공지는 평균 조회 수가 약 293에 불과했다. 학

사 공지의 평균 조회 수는 일반 공지보다 조금 더 높았지만 우리학교 학생규모가 약 2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지의 전달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학교 웹 사이트는 모바일 페이지에 최적화 되어있지 않다. 이동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학내 소식을 접하려고 해도 PC 버전으로 웹페이지가 구동되기 때문에 편리한 열람이 어렵다. 모바일 중심으로 소통하는 요즘, PC 위주의 소통방법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안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

적극적인 페이스북 운영 요구돼

이러한 소통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은 이동형 기기에 최적화된 소셜 미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월 19일 기준 우리학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35,851명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14,383명, 고려대학교 4,836명, 서강대학교 4,839명, 성균관대학교 21,005명, 중앙대학교 21,091명, 한국외국어대학교 20,399명 수준이다. 서울권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페이지는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하며, 우리학교보다 큰 규모의 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학은 한양대학교 뿐이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받아보는 인원이 35,851명이라는 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써 충분한 규모를 갖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게시되는 콘텐츠를 분석해 보면, 규모에 비해 소통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141일간 88개의 콘텐츠가 게시됐는데, 길게는 5일 간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또한 주요 게시물은 ‘희아띠랑’의 카드뉴스나 학내 행사 공지가 대부분으로, 게시물의 평균 ‘좋아요’는 약 98.1개, 평균 댓글은 약 10.1개에 불과했다. 페이스북 담당자는 “페이지에는 학내 행사관련 소식을 주로 업데이트 한다”며 “희아띠랑이 취재한 카드뉴스나 때에 따라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 중 가장 큰 규모인 한양대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무려 53,384명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다. 콘텐츠 게시 내용을 보면 우리학교보다 더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게시물은 110개로 게시물 개수만 비교하면 22개만 차이이지만, 평균 좋아요가 232.5개, 평균 댓글 수는 18.5개로 우리학교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이경전(경영학) 교수는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언급하며 풀 미디어(pull media)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현재 미디어 이용 실태는 푸시 미디어(push media)와 풀 미디어(pull media) 개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데, 푸시 미디어란 e-mail과 문자 메시지 등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송신해 대화를 시도하는 미디어를 뜻하며, 풀 미디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처

럼 상호작용해 소통을 끌어당기는 미디어를 말한다. 점차 푸시 미디어에서 풀 미디어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학교 측에서 푸시 미디어인 e-mail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매일 하루에 여러 건 학내 소식을 보낸다면 받는 학생 측은 거부감이 들고 스팸 처리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풀 미디어인 SNS에 관련 소식을 게시한다면, 강제성을 띤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학생이 적다.

고질적인 소통부족 문제

이제는 변화 시도할 때

이 교수는 “페이스북 포스팅은 푸시 전략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풀 전략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인다”며 “A와 B가 SNS를 이용해 소통하다가 우연히 교집합이 이뤄지는 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때 무의식적인 끌어당김, 즉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학교 구성원 간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동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방식의 소통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 측이 학생과 소통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적용대상** 2016-1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03학번(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 **과목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단계별로 이수해야 함 (ex : 사회봉사 2는 사회봉사 1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이수구분** 자유선택 (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 **학점체계** 1학점(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관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구비(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 **학점인정 요소**

- **봉사인정기관[중요]**

교외기관
- 1365자원봉사4.사포털(www.1365.go.kr) [안전행정부 산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동행프로젝트 (http://donghaeng.seoul.kr) [서울시] 등에 등록되었고, 활동 확인서를 상기 사이트에서 출력해 올 수 있는 기관에 반드시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인증서)는 반드시 상기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것만 인정됨.
※ 봉사활동 시작전 봉사기관에 상기 사이트에서 활동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기관
- 사전검토 및 협의된 아래 봉사활동만 인정
※ 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체경회봉사단, 입학지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우 생활도우미, 클린캠퍼스, 교내 캠페인), 교수학습지원센터 튜터링 학습프로그램, 경희부속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내 자원봉사, 경희의료원내 자원봉사,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후마니타스칼리지 신입생세미나 과목 면도)
[교외기관 활동 중 상기 3개 사이트 등록 기관에 한하여 활동을 인정하는 사유 ⇒ 사회봉사커뮤니티(http://club.khu.ac.kr/khuseg) FAQ에서 확인]

- **봉사활동인정기간** 2015. 9.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 **서류제출기간** 2016.05.23.(월) ~ 06.03(금) 오후 5시30분 마감

-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1. 인정시간 : 32시간 이상(32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
※ 사회봉사 2, 3의 경우 (직전학기)사회봉사 1, 2에서 3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직전학기 초과시간은 당해학기로 인정되지 않음.
(예 : 사회봉사 1에서 42시간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 받았을 경우)바로 다음 학기에 사회봉사 2를 신청 하였을 때, 직전학기의 초과시간(10시간)은 당해학기로 이월 되지 않음.)
2.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
3. 한월중은 1정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학기 + 수강 신청한 학기) 동안 최대 2정(총 8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함.
※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되므로, 아래 경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 하루에 한월(4시간)과 다른 봉사 7시간을 한 경우, 총 11시간이 되므로, 3시간은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4. 재학, 휴학, 복학에 상관없이 2015. 9. 1일 이후에 한 봉사활동 부터 인정가능
5. 한국어도우미는 서류제출기간 전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국제교육원으로 부터 학점인정 대상자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번 학기에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모교방문단은 재학 중 1회만 학점인정 가능
7. 교내 봉사의 경우 봉사 확인서는 활동 일자별로 시간을 기입하여(1일 8시간 이내) 소속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하지 않을시 복사본을 제출하되 원본대조를 위해 원본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 교외봉사는 반드시 인터넷동행프로젝트, VMS, 1365)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상세내역"으로 "전체출력")

- **기타**

1. 본과목은 P / F 과목입니다.
2. 사회봉사 과목은 연간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14-1학기부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F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학점(평점)에는 영향 없음)
※ 이수(과)를 위해서는 재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4. 2004학번 ~ 2010학번 학생이 사회봉사 1을 이수 할 경우 문화세계지도자영역(핵심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5학년도 까지만 자세한 사항은 (서울)후마니타스칼리지에 문의바랍니다.

- ※ 사회봉사 커뮤니티 및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에서 FAQ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직전학기 "서류제출안내 및 유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커뮤니티 : http://club.khu.ac.kr/khuseg
-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 : http://khgsc.khu.ac.kr
※ 기타 문의사항 :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 e-mail : leehw53@khu.ac.kr(담당: 이한호 교수)

보도

“사학과 추계답사, 갈 수 있을까요?”… 줄어든 자율예산, 대안은 ‘깜깜’

자율예산 급감의 여파

권윤지 기자 happypice2@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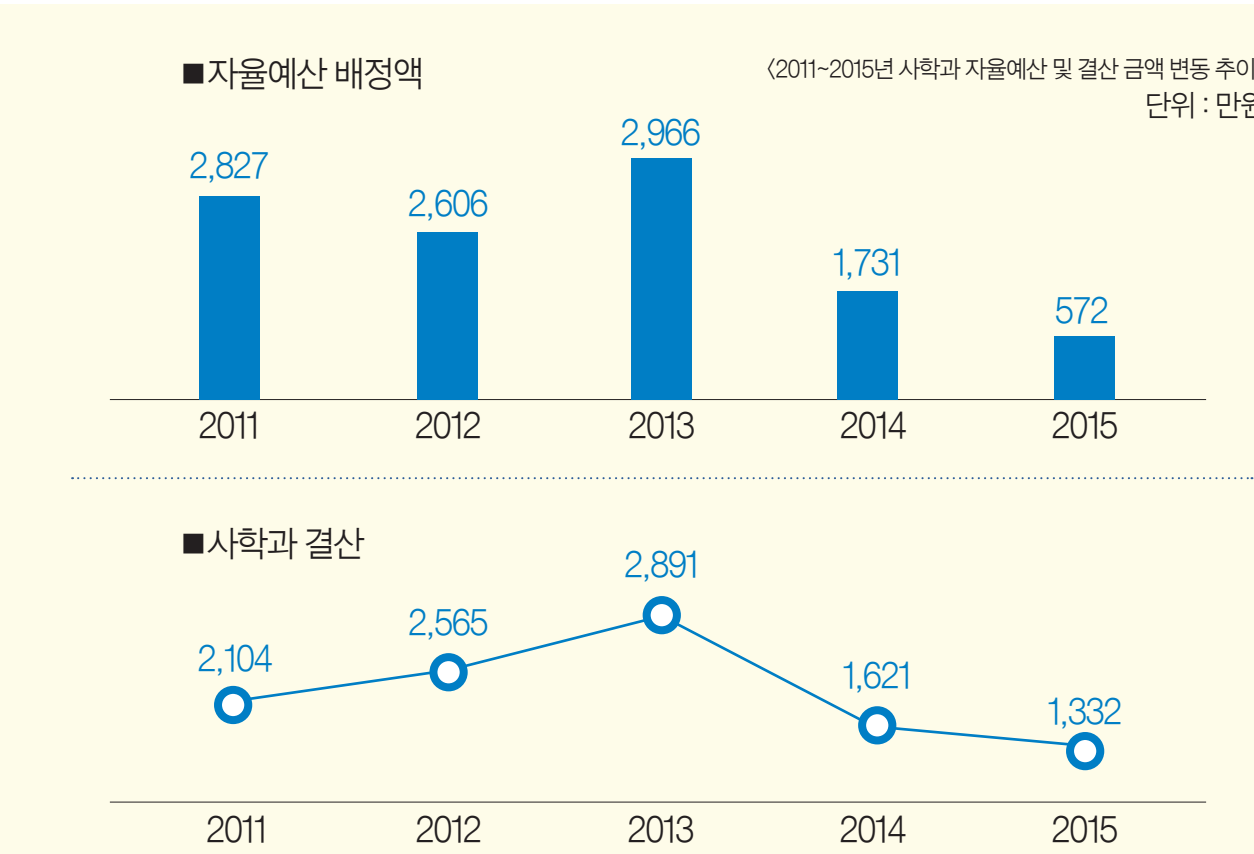
#1. **2013년.** 새내기 윤정하(사학 2013)양은 춘계답사 일정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조선 유생의 나날’이란 주제 아래 3박 4일 동안 자운서원, 도산서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9만원인 답사비가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한 학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다음 학기에 있을 추계답사가 기대된다.

#2. **2016년.** 새내기 신동혁(사학 2016)군은 춘계답사 일정표를 보고 체계적인 구성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다. 2박 3일 동안 경주에 있는 유적지들을 위주로 둘러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11만원이 넘는 답사 비용도 내심 부담됐다. 선배들 말에 의하면 최근 사학과 자율예산이 급감해 학생 개인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 사학과 16학번 대표로서 지난 4월 새내기 울동제 발언 시간에 ‘자율예산 문제로 저희가 추계답사를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외쳐 봤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다.

2013년 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4개 이상의 도를 거치는 3박 4일 춘계답사를 9만원에 다녀왔지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경주에만 머무르는 2박 3일의 일정을 11만 5천원의 비용을 내고 가야했다. 3년에 불과한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2013년 이후 급감한 사학과 자율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사학과 자율예산과 결산 금액의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에 2,966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던 자율예산이 2014년엔 1,731만 원으로 급감했다. 1년 만에 약 1,200만 원이 줄어든 것이다. 2014년에 양 캠퍼스 미래정책위원장과 단과대학 학장들의 회의 결과, 단과대에 분배되는 자율운영예산을 5%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당시 2014학년도에 배정된 전체 자율예산 총액 304억 원에서 약 17억 원 가량 감축된 바 있다. 언뜻 보면 2014년에도 결산 금액이 자율예산보다 적어 넉넉하게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본부가 5월 중 110만 원 상당의 자율예산을 추가로 조정할 것을 각 단과대학에 의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과 결산 금액이 같았다.

이후 2015년부터 학과 별로 평가 지표 순위에 따라 추가 예산을 지급하는 O&P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O&P 제도가 시행된 첫 해에 사학과가 자율예산으로 받



	2013년	2016년
주제	조선 유생의 나날 : 일상과 교육으로 살펴본 유생의 삶	신라의 달, 경주를 비추다.
1일	09:00 학교 출발 11:00 경기도 파주 자운서원 16:30 여주 혁림사 18:00 강원도 원주 간현	08:30 학교 출발 15:30~16:30 국립 경주 박물관 16:40~17:30 오름 17:40~19:00 월성 21:00 학술 프로그램
2일	11:00 경상북도 영주 소수서원 14:00 영주 부석사 16:00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17:30 영주 한국 선비	09:00~10:15 불국사 10:50~11:20 감은사지 11:30~12:45 문무왕릉 14:00~14:30 분황사 14:35~15:30 황룡사지 15:40~17:00 대릉원 18:20~19:20 안압지 21:00~ 레크레이션
3일	09:30 영주 순흥향교 13:00 안동 국학진흥원 14:00 안동 도산서원 17:30 예천 삼강주막	09:30~10:10 김유신 장군묘 10:20~11:20 무열왕릉, 서악동 고분군 14:00~14:40 임당동 고분군 19:00 학교 도착
4일	10:00 문경새재, 옛길 박물관 16:00 충청북도 충주 탄금대 19:00 일정 종료 및 뒤풀이	-
비용	9만원	11만 5천원

은 금액은 572만 원에 불과했다. 문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예산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572만 원으로 1년

비해 비교적 더 많은 금액을 추가예산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2015년도 결산이 2014년도의 예산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미래정책원 이승민 계장은 “자율예산이 줄어든 것은 제도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모든 단과대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사학과만 특별한 불이익을 겪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자율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학과에 계한 해당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별교비장학을 제외한 자율예산 총액은 서울캠퍼스 전체에서 8% 가량 삭감됐으며, 특히 경영대학·이과대학과 의학·예술계열을 제외한 대부분 단과대가 10% 이상 삭감됐다. 그 중 사학과가 포함된 문과대학 고정 사업비 삭감 비율은 14%다. 이밖에 법과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은 각각 26%, 16%씩 삭감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일 사학과 자율예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사라진 추가예산의 행방을 공개수배 합니다! 사학과 2학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170만 원 정도 더 많은 약 740만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춘계답사로 이미 46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상황”이라며 “최근 사학과는 1학기는 ‘자율예산’으로, 2학기는 O&P와 부총장 특

별 교부금으로 구성된 ‘추가예산’으로 생활해 왔는데, 올해 등록금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O&P가 시행되지 않을뿐더러 부총장 특별 교부금 1억을 제외하고는 추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답사가 예정된 사학과 학우들의 2학기를 보장하라”고 본부에 요구했다.

대자보를 쓴 사학과 최은혜(사학 2013) 회장은 “추가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추계답사를 못 가게 된다면, 학과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번엔 정말 추계답사를 못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추가예산을 지급하는 O&P 제도는 올해도 시행된다”며 “다만, 부총장 교부금이 3억에서 ‘1억’으로, 서울캠퍼스 O&P 지원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5억 줄어 올해 단과대학으로 지급되는 추가 예산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줄어든 5억은 다양한 사업들로 배분됐고, 단과대학의 자율예산으로 배부되는 추가예산 금액은 줄었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 경비 예산은 작년 결산대비 24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지원경비 중 교내 장학금이 18억, 실험실습비가 6억, 학생지원비가 8억 늘은 반면, 기타 학생 경비 10억이 줄어 올해 학생 경비는 작년 결산대비 총 24억 원 정도 높게 예산이 책정됐다. 교내 장학금 예산 확대 비중이 유달리 높은 이유에 대해 이 계장은 “국가장학금 2차 유형 지원 기준 충족과 국제화 연수, 재학생 수 증가, 외국인 학생 장학금 증가 때문”이고, “O&P제도 지원 금액이 줄은 대신 교육대학원과 체육대학 실습,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확대돼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사 비용은 자율예산이고, O&P 평가 점수가 낮으면 추가 예산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문과대 안에서 자구 노력 등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학과가 추계답사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학과 박윤재 학과장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제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 학기가 마무리 되면, 문과대 행정실과 협의해 본부 측에 공식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만약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올 경우, 그때 다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인권감수성, 마음으로 느끼는 '신호등'

전문가칼럼 - 인권감수성

박숙경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법률봉사 차 동행했던 사법연수생 동명 씨(가명)가 다가와 물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되요?”

그날 조사하던 장애인시설은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곳이었다. 단체생활을 위한 생활동과 새로 지은 예배당을 갖춘 전형적인 모습의 그 건물은 나를 깜빡했다. 시설임구 게시판에는 거주인들의 사진들이 붙어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이름, 주민번호, 성격과 특징 등이 적혀있었다. ‘명랑하지한 거짓말을 잘 함, 수줍음이 많고 신경질적임’과 같은 내용이었다. 흡사 동물원에 수용된 동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동명 씨가 머뭇거리며 꺼낸 질문은
이랬다.

“제가 보기에 이 시설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이만하면 살만한 거 아닌가요? 건물도 깨끗하고 식사도 제 때 나오는데 왜 시설이 문제라는 거죠?”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당신은 살고 싶은가

이 사람은 입구의 게시판을 보지 못한 걸까? 나는 길게 답할 시간도 없고 짜증도 나서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다. “동명 씨는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윽고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명 씨가 내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같으면 살고 싶나?’는 이야기를 듣고 벼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떤 지를 생각해보니 베일이 벗겨진 듯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 보였습니다. 그 시설에서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뭐가 문제



인지 온 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04년 여름, 미신고시설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는 미신고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려는 복지부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던 차였다. 미신고시설양성과 정책은 한시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처벌을 유예하여 대거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던 정책이다. 당시 양성과 정책에 의해 신고시설로 전환 중이던 미신고시설들 대부분은 시설장과 그의 친인척에 의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다수가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었다. 문제 시설들이 양성화되어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얼굴들과 마주하며 정해진 시간표대로 먹고 사는 삶을 살다보면 사람들은 점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과 꿈을 잃어간다. 시설은 인간다운 삶을 상실시키고, 사회적 자극과 발달이 멈춰지는 분리와 배제의 공간이다.

나는 12년째 시설에서 발생해 온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탈시설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런 내게 사람들은 묻는다. “왜 시설이 문제냐? 그나마 효율적인 대안이 아니냐? 모든 시설이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들에 대해 난 할 말이 그리 많지 않다. 그저 “당신은 시설에서 살고 싶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어떠한 이유라도 차별 안돼

은가?”라고 묻고 싶다. 이 짧은 질문을 통해 동명씨는 자신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음을 자각했다. 나는 시민교육 시간에도 학생들에게서 ‘소수자에 대한 타자화’ 모습을 보곤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을 당연히 하는 태도,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배제와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는 태도 등을 보곤 한다. 그들을 자신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자선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말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

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은 반인권적인 것이다. 차별은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하는 심리로부터 자라난다.

나는 시민교육시간에 2015년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성우 교수팀이 개발한 대학생인권감수성 테스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표는 각각의 권리내용을 구체적인 사회의 제로 바꿔 지지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인권감수성을 측정한 후 자신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맞는 국가를 매칭 해준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측정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낮다. 아마도 우리 현실이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감수성은 인권을 마음으로 느끼는 신호등이다. 인권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접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은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도 높다. 인권감수성을 쉽게 키우는 하나의 방법은 모든 사안에 대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것이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진 복잡한 인권이슈가 쉽게 몸으로 느껴진다. 내 안의 ‘타자화’ 심리를 인식하고, 넘어서는 것이 인권감수성의 시작이다.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돈은 모든 행복과 만족의 지표이다.

집멜이 말하고 있는 돈은 근대적인
세계상의 일부분인 동시에 상징이자
거울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인 삶
에서는 확고하고 본질적이며 안정적
인 지식, 이념,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다.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
아버린다.”

근대의 모든 것은 발전, 운동 및 불안정의 상태로 존재한다. 돈과 화폐 거래는 사물들의 이러한 ‘판타 레이 (=만물은 유전(流轉)한다)’의 과정을 지탱하게 하고, 이 과정 때문에 돈과 화폐 거래가 존속된다. 이러한 경제적 질서에 대하여 짐멜은 “동시에 전체 운동의 상징이자 거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단지 다음을 언급할 수 있을 따름이다. 화폐경제와 같은 현상은, 아무리 전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법칙들을 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동시대 문화 운동들 전체를—심지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운동도 규제하는 동일한 리듬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마당

김성환
(산업경영공학과 2009)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범죄 '반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다녀왔다. 작년 12월 28일
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갑작스럽게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위안
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따라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위안
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
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룬 박물관답지 않게 시민들의 눈
에 잘 띄지 않는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아래 주택가에 위치해 있
다. 처음에는 서대문독립공원 부지에 건립을 하려했지만, 독립운
동단체들이 몸을 더럽힌 여성을 위한 박물관은 지을 수 없다며
공개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건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관련 전
시와 함께 베트남 전쟁 피해자에 대한 전시도 하고 있다. 실제 베
트남 전쟁 피해 여성이 쓴 글들을 통해 당시 어떤 형태의 범죄들
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군대를
파병했다. 그때 파병된 우리나라 군대에 의해 민간인 학살, 집단
강간 등의 전쟁범죄가 발생했다. 베트남에는 아직까지도 한국군
증오병이 60여 개의 마을에 남아있다고 한다. 박물관에서는 베트
남에서 불리는 한국군에 대한 증오의 노래가시도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범죄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 전쟁 피해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베트남 전쟁 피해자는 한국을 방문해서 강연회를 가졌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간 몰랐던 베트남에서의 전쟁범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강연회장 입구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강연회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오늘에 이르러 베트남 전쟁은 우리 사회에서 전쟁의 핏값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경제 전쟁’으로 자랑스럽게 기억되고 있다. 참전 군인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스스로를 전쟁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해방이 된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피해자는 제의된 채로 이뤄진 작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저지른 베트남에서의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은 무려 74%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75.4%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시선은 다른 법이다. 베트남 전쟁범죄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범죄 피해자는 곧 우리가 저지른 가해의 역사이다.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堂堂당하게 사과를 주장하려면 우리가 먼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알고 성찰하며 사죄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경제 전쟁’이라는 신화를 해체하고, 전쟁 피해자의 고통을 직시하고 사실을 사실로 사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1면에서 이어짐

돈은 모든 가치를 교환가치라는 등가성(等價性)과 관련지어 평가하게 함으로써, 사물과 사람의 고유한 질적 가치를 박탈하고 세계를 수(數)와 양(量)의 문제로 변형시킨다. 이처럼 교환가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서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물음으로 바뀐다. 집멜은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교환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 사람들은 사물의 고유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 여기서 ‘둔감함’이라는 현대적 태도가 나타난다. 즉, “사람들은 객체들의 뉘앙스와 특징에 대해서 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세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일한, 따라서 무감각하며 더 이상 결정적인 진폭이 없는 색채 속에서 느낀다”는 태도이다.

또한 짐멜은 사람들은 재화를 얻는 수단에 불과한 돈을 오히려 독립적인 재화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다.



집멜은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교환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 사람들은 사물의 고유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

“최종적인 가치에 이르는 다리에 불과한” 돈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다리 위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화해 모든 것을 화폐에 의해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뒤바꿔놓은 자본주의 때문인지, 현대인들에게 돈의 획득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옥시 불매운동에 그치지 말아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바라보는 임신에 교수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가습기 분무액을 살균하기 위해 사용 해 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을 앓게 됐다.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원인미상’의 폐질환 환자를 발생시켜 오다 2011년 정부의 명령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정부가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환경보건학회 회원의 자비와 자원봉사로 2012년 국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학자의 양심으로 피해자의 편에 선 이들 가운데 경희의료원 임신에(직업환경의학) 교수가 있었다. 임 교수를 만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건조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앞두고 아이 곁에 가습기를 틀어 둔 엄마는 가습기 물통에 낀 물때를 걱정했다. TV에서도 가습기의 물통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며 가습기 위생에 신경 쓰라는 방송을 했다. 그 때 엄마는 가습기 살균제 뚜껑 한 개 분량을 가습기 물통에 넣으면 간편하게 항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다. 엄마는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 한 후 장바구니에 담았다. 소중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던 엄마의 마음은,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와 그것의 판매를 허락한 정부로 인해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의 수만 해도 1,528명이다. 그 중 15.6%에 달하는 239명은, 가족의 품을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다.

1994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가습기를 필요로 하던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환자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 임신에 교수의 지적이다. 임

교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판매량 속에, 2000년 넘어서부터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며 규모가 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심각한 호흡기 증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15년 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 확실”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대학병원 소아과에서는 ‘봄만 되면 폐가 망가진 환자들이 이상하게 많이 오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사망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2006년에는 대한소아학과학회지에 ‘원인미상 소아급성 간질성폐렴 사망사례 발생’에 대한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던 2011년 4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을 호소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들의 입원이 증가했다. 입원한 8명의 임산부 중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등 외부연



론에서는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산모연쇄사망’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병원 측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감염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폐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자,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 이 상황을 신고하고 원인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 해 8월,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 동물실험을 의뢰했다. 쥐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쥐들이 죽어가고 죽은 쥐에서 피해자의 가장 큰 특징인 폐 섬유화가 발견됐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동물실험에서도 확인이 되자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전량수거명령을 내렸다. 이후 피해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음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대책은 제조사에 소송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규 화학물질은 쏟아지지만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

피해자 접수조차 받지 않았던 정부를 대신해서, 2012년 경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환경보건학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실태조사였다. 임 교수는 바로 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며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접수를 하면 조사자들이 전국에 흩어진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했어요. 총 70여 가구 정도를 찾아가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가습기의 위치 등 통일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이렇게 진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건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노출실태와 건강영향조사)라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던 와중에 학계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활발히 이뤄지자, 정부에서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1차 피해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4차 피해조사에 대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 피해조사에는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를 접해 본 적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임 교수는 1차 피해조사에 참여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증상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돕는 등 피해자 정신건강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또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사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들은 큰 죄책감에 빠져있죠.”

최근 들어 다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부각되고 있는 이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한 복판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한 임 교수. 그에게 “우리는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전문가적 조언을 구해봤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서 그치지 말아야 해요. 좀 더 본질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유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효과가 뛰어난 살균제품을 만들기 위해 독성이 강한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임 교수는 “상용 제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사용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다”며 “그만큼 합성 화학물질로 이뤄진 상용 제품의 안정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여타 환경성 피해사례와 달리 오히려 위생개념이 철저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청소하는 입장의 사람은 힘 안들이고 깨끗하게 닦이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들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을 쉽게 제거하는 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임 교수는 “국내에서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사용방법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살균제는 가습기 물통을 세척할 때에만 잠시 사용하고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안전인데, 기업 측이 잘못된 사용법을 제시하여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사용방법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제품 별로 안전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 교수의 조언이다.

매년 수십만 개의 신규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한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건강 관련 이슈가 문제가 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일반인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건강 관련 이슈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 교수는 “사용자가 시제품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판단이 들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우선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 시기에 사용자의 신고가 모이게 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회사에 연락하거나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1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2 KHU Global Engagement 3 후마니타스칼리지 2.0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대학이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함께 '더 나은 문명'을 추구합니다

인간 대신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 인간의 인간다움을 재정의해야 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깊이 성찰해야 하는 문명-경희대가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학의 새로운 가치와 지향점을 추구합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을 예의주시하면서 50년, 100년 후 인간과 지구에 도전합니다.



KYUNG HEE UNIVERSITY

바이오헬스 동서 의료·보건의 미래

미래 과학 인간 친화적 성장동력

인류 문명 전환설계를 통한 지속가능 문명

문화 예술 인간의 무한한 정신세계 고양

사회 체육 몸과 문명의 조화와 균형

바이오헬스

'동서 의료·보건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계협력 (천연물신약, 바이오헬스, 실버)

미래과학

'인간 친화적 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연계협력 (창정에너지, 생태·환경, 융합공학)

인류문명

'전환설계를 통한 지속가능 문명'을 구현하는 연계협력 (미래학, 문명론, 인지과학)

문화예술

'인간의 무한한 정신세계를 고양하는 연계협력 (도시전환, 예술과 새로운 삶, 미래미디어)

사회체육

'몸과 문명의 조화로운 결합을 증대하는 연계협력 (인문체육, 스포츠문화학, 몸철학과 웰빙)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상단 부조를 다듬은 것입니다. 1956년 완공된 본관 부조는 경희의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2016 / 2017 석학초빙 분야 : 우주론, 미래학, 문명사, 과학철학, 인지과학, 평화학, 종교학, 미학, 예술사 분야 00명

문의 : 서울캠퍼스 교무과 02)961-0051 국제캠퍼스 교무과 031)201-3031 임용정보 : bang.khu.ac.kr/hjis2/